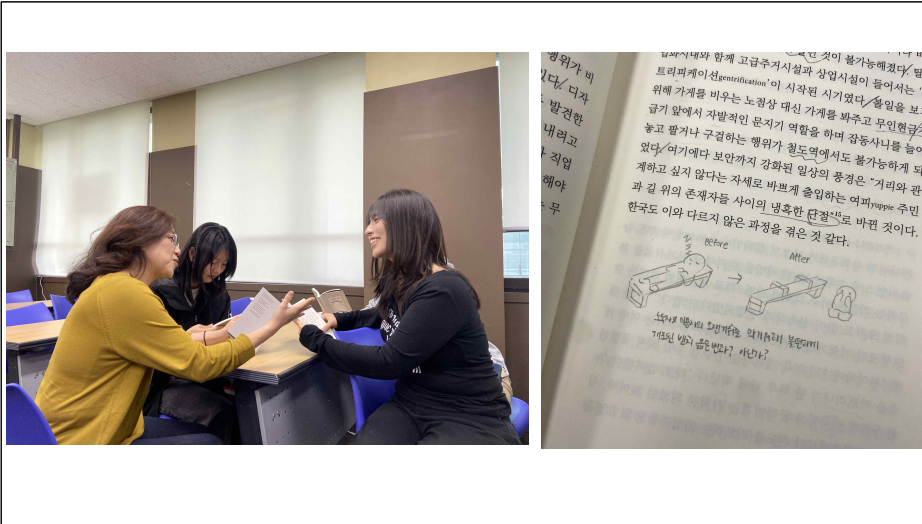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다독다독

	일시	10월 10일 4:30-5:30 창의관 405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민서(2253051)	○
		김승혜(2253039)	○
		박혜연(2253075)	○
진도	도서명: 디자인과 도덕	진도페이지: 17p. ~ 71 p.	
1주차	토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박민서, 김승혜, 박혜연 정유정 교수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착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2. 공원의 벤치_노숙자 때문에 팔걸이를 설치하고, 오래 못 앉게 만든 디자인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착한 디자인을 말하는 것에 앞서, 착한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보았다. 착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하나의 쉐어링포인트로 쓰기 위해 나온 단어이다. 자극적이다.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2. 공원의 벤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모로 좋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으로 많이 추려졌다. 사실 노숙자 때문에 공원이나 벤치를 찾는 사람들이 줄고,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견 등등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가져온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시	11월 7일 4:30-5:30 창의관 405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민서(2253051)	○
		김승혜(2253039)	○
		박혜연(2253075)	○
진도	도서명: 디자인과 도덕	진도페이지:	71p. ~ 139p.
2주차			
토론 내용	<p>[박민서, 박혜연, 김승혜]</p> <p>디자인과 도덕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p> <p>지은이는 착함에 너무 집착하는 듯 싶다는 의견에 있어서 도덕과 착함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착함은 도덕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있어 일부분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착함보다는 디자인과 도덕 자체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다른 의견으로는 도덕을 얘기하기 위해 착함을 꺼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때 논점으로 착함을 선택하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디자인이 도덕을 얘기하기에 가장 벗어나도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책 자체는 정의를 하려 하는 것이 더 크다고 느껴짐. 디자인은 자율적인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함</p> <p>자신만의 디자인관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함.</p>		

3주차	일시	9월 26일 4:30-5:30 창의관405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민서(2253051)	○
		김승혜(2253039)	○
		박혜연(2253075)	○
진도	도서명: 디자인과 도덕	진도페이지:	1 p. ~ 17 p.
토론 내용	 <p>[박민서, 김승혜, 박혜연, 정유정 교수님]</p> <p>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OT진행 앞으로 책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읽을지 어떤 식으로 토론을 진행할지에 대한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말해보았다.</p> <p>앞으로 진행할 기간 동안 읽을 책 분량을 4단위로 정리했고, 읽은 부분 중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 토론을 진행해보고 싶은 부분 및 추가 사례에 대해 한 가지씩 가져와서 진행하기로 했다.</p>		

4주차	일시	11월 28일 3:00 - 4:00 창의관405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민서(2253051)	○
		김승혜(2253039)	○
		박혜연(2253075)	○
	진도	도서명: 디자인과 도덕	진도페이지: 140p. ~ 198p.
토론 내용	 <p>[박민서, 박혜연, 김승혜]</p> <p>승혜: 요즘 작업을 할 때 느끼는 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느낀다. 요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도 기본 예의와 배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책 중 디터람스의 말/ 형태가 기능을 따라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인상이 깊었고, 나 또한 기본이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p> <p>민서: 디자인과 도덕을 읽고 첫 거부감이 강했지만 타격이 있었던 구절이 있다. 지구를 구하는 제품이 있더라도 사실 제품은 지구를 망친다는 것이다. 디자이너로서 창작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직업이라 어쩔 수 없지만 한 번쯤은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문제 의식이라 생각하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p> <p>혜연: 이 책을 읽으며 지은이와 점차 화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은이는 강한 자신의 주장을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이를 수습하는 말을 남겼는데 그는 착한 디자인의 정답이라 생각을 남겼다. 이를 통해 인상 깊게 느낀 구절은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주장보다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다. 이로 인해 파생된 나의 생각은 생산을 그만할 수는 없으니 생산을 잘 처리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박민서 (2253051)	<p>이제 막 책을 좀 잘 읽으려고 하는 책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러한 기회를 발견해 독서토론을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어색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심을 많이 했지만, 진행을 하다 보니 모두 진지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다. 학교에서는 교수님보다 동기들과 배우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도 좋았다.</p>
	2	김승혜 (2253039)	<p>책을 평상시 잘 읽지 않았던 편이어서 이러한 독서토론이라는 활동이 반갑지 않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조금은 책과 가까워지며 한 책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읽으며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교환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거 같다.</p>
	3	박혜연 (2253075)	<p>디자인과 도덕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착한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지은이가 너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내가 지은이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나는 착한 디자인이 좋고 그 방향성을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지향하길 바라길 때문이다. 근데 이후 책을 읽고 책의 막바지로 넘어가면서 점점 지은이가 왜 그렇게 초반에 말했는지 알게 되었다 지은이는 착한 디자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디자이너에게 세상의 문제를 바꿀 책임을 넘겨버리는 것만 같아서 그 말에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은이는 디자인으로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서토론을 진행하면서 매 주차 나의 생각이 변하고 점차 환경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 책을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생각을 나의 생각을 점차 넓힌 것도 좋았다. 디자인과 도덕에 있어 지은이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해보며 나만의 생각을 적립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p>
	4		
	5		